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부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동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
수상내역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작가	김수민
기획의도	<p>이 작품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작품에서 '나'를 강아지 '복실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옛날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모든 남녀노소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p>
작품설명	<p>이 작품 안에서 주인공 '나'인 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는 산복도로 주택에 살면서, 옛날부터 저녁 무렵 매일 산책을 합니다. 계단에 오르며 강아지 '복실이'는 산복도로 계단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문득 할아버지가 왜 이곳을 매일 산책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p> <p>할아버지와 '복실이'는 산책 후, 경사가 심하고 긴 계단 위에 나란히 앉아 저녁노을에 물드는 마을 아래를 바라보며, 아이일 적 이곳의 생활을 회상하고, 그 내용을 강아지 '복실이'를 통해 독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p>

16. 똥강아지 복실이와 할아버지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 김수민 -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똥강아지 복실이입니다. 저녁노을이 지기 전, 오늘도 할아버지와 나는 어김없이 저녁 산복도로에서 산책합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길로 산책합니다. 이곳은 참 신기합니다. 중간마다 계단도 많이 있고, 구석엔 신기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팔려 잠시 뒤쳐진 나를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복실, 뭐하노, 온나~”

우다다 달려간 할아버지 옆, 산책길에서 빠지지 않는 마지막 코스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 계단이 나에



비해 아주 높고, 크기도 커 보였습니다. 회색파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한 칸을 올라가는 것도 몇 번씩 미끄러지고 뒷발을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 번째에 성공, 두 번째에 성공, 그리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를 조금은 힘겨워하시는 듯, 원래도 불편하셨던 다리를 더욱 절룩거리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셨습니다. 저는 왜 할아버지가 힘이 들어 하시는 데도 매일같이 계단을 오르시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많기만 한 계단이 미웠습니다. 전에는 계단을 오르는 재미에 할아버지보다 먼저 앞서 올라가곤 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계단을 다 오르자, 늘 그렇듯 붉은 저녁놀이 물든 계단 아랫동네가 한 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하시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곤 계단에 앉으셨습니다. 나도 두 발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왜 계단을 오르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참 많이 변했네…. 내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는 아이였을 때, 여기에 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르릉 울리고 땅이 울리는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과 이곳 부산

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과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살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물 또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할 만한 판자 같은 것을 주워서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또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멀리까지 가서 판자 같은 걸 주우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킁킁거리며 키보다 조금 큰 그것을 들고 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심각한 상태였지만, 치료를 바로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다리를 절룩거리십니다.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이 계단을 올라서 한참을 가야 하는 곳에 집을 지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참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나가셨고, 어머니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지금 처럼 붉은 저녁놀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계단은 나에게 슬픔과 동시에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그리움이란다.”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쁘면서 슬픈 게 무엇이고 반가우면서 그리운 건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곳은 다르게 생긴 사람도 많이 있고, 큰 건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움직이고 있을

까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는 가끔 계단에 앉아 아랫동네를 보실 때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기라도 한 듯이 무언가를 보고 계실 때가 잦기 때문입니다.

아랫동네에 하나 둘 등불이 켜지고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섰을 때, 계단 아래서부터 재잘재잘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는 그 아이와 엄마를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이 계단에서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